濟大新報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二洞五八一—
電話：2125—7
우편번호 590

發行編輯兼印刷人 邊時敏
主幹 韓昌燦
編輯長 金東柱

印刷：韓一印刷社
濟州市三徒一洞 931
電話：6019

學訓

1. 誠實性
2. 自律性
3. 實踐性
4. 敬愛

一한마디

인간은 희사슬과 같아서 가장 약한 고리의 부분을 보고 전체의 희사슬이 약하다고 본다.

開講 바빠진 龍淵골

—지난 9月 1日 正常修業에—

12月 24日까지 85日間

조용한 가운데 면학분위기 實感

●…76학년도 제2학기가 막이 올랐다. 지난 9월1일 개강함으로써 85일간의 2학기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7월20일 여름방학을 시작한 이래 40여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학문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1500여명의 재학생들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강신청을 마치고 9월1일부터 일제히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이번 학기는 이태적으로 개강과 동시에 정상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그동안 조성됐던 면학분위기를 더욱 심화케했다.

●…이번 학기는 오는 12월24일 학기말 고사를 끝날때까지 85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9월1일을기해 활짝열린 교문은 법썩대는학생들로 어느때 보다 좁게 보였다. 교무과와 학생과는 학생들의 여러가지 문의로 눈코뜰새 없었고 텅비었던 강의실과 캠퍼스 곳곳에서도 학생들의 젊은 임김이 스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오랫만에 만난 학우들과인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눈에 띄었다. 교내 게시판에는 1학기초와는 달리 써클관계의 포스터가 거의게시되지 않았고 교무과에서 알리는 수강신청요령과 2학기중 시간표만 죽 부착되어 있었다.

한편 교무과에서는 2학기중 주요학사 일정을 발표했다.

교무과에 의하면 2학기 학사일정은 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교무과에서 발표한 주요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강(9월1일) ▲재학생 신체검사(9월15일) ▲추계동반대회(10월10~12일) ▲고사(12월20일~24일) ▲2학기중간고사(10월18~23일) ▲동계방학(12월25일~77년1월21일) ▲추계체육대회(11월3일~4일) ▲종업식(2월31일) ▲2학기말 ▲입학고사(77년2월

12個學科增設要請

教育大學院과 學科昇格도 함께

본대학은 문교부의 각대학 중설학과 조정작업과관과의 결과 지역개발학부의 법학 지역개발학과등 19개학부에 사학과, 독일어, 불어과를 새로 신설해주도록문교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교육대학원의 신설과 편제상「전공」으로 된 9개학과, 건기학과, 저축학과, 농공학부에 토목학과를「학과」로 승격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당국자에 따르면 신설을 요청한 학과는 지역개발학과, 교육학과, 사학과, 독일어, 불어 우나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청에는 내년도 교육대학원의 신설과 「전공」을 학과로 승격해 줄 것도 아울러 전의했는데 교육대학원은 여름방학 한꺼번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미전 주최측은 본대학 미술교육과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양화부(일반부) 특선 ||강동원(4) 김효순(4) 김은숙(4) 김영희(4) 김종백(관광·3) 윤성희(국교·3) 장려상||강동한 조연숙(3) 장려상||임상편을 통하여 보내온 아시재단은 지난 60년 이후 15차에 걸쳐 1945권의 洋書를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기증했다. 『Plane analytic Geometry』를 비롯한 156권의 洋書를 우리나라 한국공업대학에 보내온 아시재단은 지난 9월3일 문화사업 아시아재단에서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도서를 증정했다. 『Plane analytic Geometry』를 비롯한 156권의 洋書를 우리나라 한국공업대학에 보내온 아시재단은 지난 9월3일 문화사업 아시아재단에서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도서를 증정했다.

○동양화부(일반부) 특선 ||강동원(4) 김효순(4) 김은숙(4) 김영희(4) 김종백(관광·3) 윤성희(국교·3) 장려상||강동한 조연숙(3) 장려상||임상편을 통하여 보내온 아시재단은 지난 60년 이후 15차에 걸쳐 1945권의 洋書를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기증했다. 『Plane analytic Geometry』를 비롯한 156권의 洋書를 우리나라 한국공업대학에 보내온 아시재단은 지난 9월3일 문화사업 아시아재단에서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도서를 증정했다.

○서양화부(제1부) 장려상||고영석(3) 입상||고미순(4) 박영진(4) 김명희(4) 좌영선(4) 박진영(3) 장민의(3) 김영애(3) 강영남(3) ○동양화부(새마을운동부) 장려상||김영희(2) 입선||이경미(2) 김수리(2) ○그래픽(제1부) 장려상||진명자(2) ※()안은 학년.

後期 奬學生 名單 發表

對外奬學生 51名等 全學生의 21%

지난 9月5日 76학년도 50여명으로 교내장학금은 후학기 장학생 명단이 확정 발표됐다.

이날 학생과에서 발표한 장학생수는 예전과같이 전체 교생의 21%에해당하는 2종의 대외장학금을 지급받아 교내장학금은 수혜한 학생은 다음과 같다.

△운정장학금 수혜자
양 영 오(수교·4)
이 광 일(원예·3)
△양성기(어로·3)
△부전장학금 수혜자
김 종 훈(영교·3)
△우월장학금 수혜자
부 희 숙(영교·3)
△육영수여사장학금 수혜자
박 성 숙(가교·4)
△산학협동장학금 수혜자
이 영 찬(제조·4)
△인산흉악회장학금 수혜자
이 승 국(행정·3)
오 석 훈(미교·4)
정 용 언(체교·3)
김 치 복(경영·2)
김 종 백(관광·3)
△5·16장학금 수혜자
강 성 철(수의·4)
김 학 량(농화학·3)
이 용 수(중식·2)
이 창 림(축산·2)
△제주도장학금 수혜자
이 홍 원(원예·4)
정 군 찬(원예·3)
송 정 범(농화·3)
김 동 후(축산·2)
허 정 분(식물·2)
임 택 훈(어로·3)
현 용 종(중식·2)
△원호장학금 수혜자
양 우 일(원예·3)
김 상 순(축산·3)
강 법 선(중식·4)
양 영 철(원예·3)
이 강 석(부과·2)
이 용 완(관광·1)
홍 석 원(경영·2)
김 성 배(관광·3)
김 두 선(국교·4)
최 종 무(경영·2)
한 경 국(체교·1)
△양 성 기(어로·3)
△부전장학금 수혜자
김 종 훈(영교·3)
△우월장학금 수혜자
부 희 숙(영교·3)
△육영수여사장학금 수혜자
박 성 숙(가교·4)
△산학협동장학금 수혜자
이 영 찬(제조·4)
△인산흉악회장학금 수혜자
이 승 국(행정·3)
오 석 훈(미교·4)
정 용 언(체교·3)
김 치 복(경영·2)
김 종 백(관광·3)
△5·16장학금 수혜자
강 성 철(수의·4)
김 학 량(농화학·3)
이 용 수(중식·2)
이 창 림(축산·2)
△제주도장학금 수혜자
이 홍 원(원예·4)
정 군 찬(원예·3)
송 정 범(농화·3)
김 동 후(축산·2)
허 정 분(식물·2)
임 택 훈(어로·3)
현 용 종(중식·2)
△원호장학금 수혜자
양 우 일(원예·3)
김 상 순(축산·3)
강 법 선(중식·4)
양 영 철(원예·3)
이 강 석(부과·2)
이 용 완(관광·1)
홍 석 원(경영·2)
김 성 배(관광·3)
김 두 선(국교·4)
최 종 무(경영·2)
한 경 국(체교·1)
△양 영 오(수교·4)
이 광 일(원예·3)
△양 성 기(어로·3)
△부전장학금 수혜자
김 종 훈(영교·3)
△우월장학금 수혜자
부 희 숙(영교·3)
△육영수여사장학금 수혜자
박 성 숙(가교·4)
△산학협동장학금 수혜자
이 영 찬(제조·4)
△인산흉악회장학금 수혜자
이 승 국(행정·3)
오 석 훈(미교·4)
정 용 언(체교·3)
김 치 복(경영·2)
김 종 백(관광·3)
△5·16장학금 수혜자
강 성 철(수의·4)
김 학 량(농화학·3)
이 용 수(중식·2)
이 창 림(축산·2)
△제주도장학금 수혜자
이 홍 원(원예·4)
정 군 찬(원예·3)
송 정 범(농화·3)
김 동 후(축산·2)
허 정 분(식물·2)
임 택 훈(어로·3)
현 용 종(중식·2)
△원호장학금 수혜자
양 우 일(원예·3)
김 상 순(축산·3)
강 법 선(중식·4)
양 영 철(원예·3)
이 강 석(부과·2)
이 용 완(관광·1)
홍 석 원(경영·2)
김 성 배(관광·3)
김 두 선(국교·4)
최 종 무(경영·2)
한 경 국(체교·1)

푸른 초원위에
끝없는 自由가 있읍니다.
이 넓은 광야에
우리의 젊음이 있읍니다.
이 무한한 우주공간에
우리이 浪漫이 있읍니다.
우리의 젊음은, 自由를, 浪漫을
이 광활한 대지위에서
불태워 봅시다.

〈秋〉

出席点數制 廢止

10月경 教授會議 열어야 決定

無根 事實

출석점수제 폐기가 사실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2학기 내에 출석점수제의 변경을 강력하게 시사하고있다. 한편 출석점수제는 100점 만점의 학과점수중 20%에 해당하는 20점을주었던 변화가 없다. 이에 관해서 확인백교무과장은 "출석점수제가 대학당국자에의해 고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학칙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의 폐기는 학칙의 변경없이는 불가능하다. 학칙개정은 오는 10월 중순경에 열리는 교수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이때 출석점수제에 관한 학칙변동이 포함된다 하드래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될지는 현단계에서 논의할 문제가 못된다고 말함으로써 일단 출석점수제 폐기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석점수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2학기 내에 출석점수제의변경을 강력하게 시사하고있다. 한편 출석점수제는 100점 만점의 학과점수중 20점을주었던 제도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美術 教育科 大學美展 好調

特選 강동언君等 14名 入賞

문교부가 주관하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주최한 제7회「전국대학미전」입상자가 발표되었다.

이번 대학미전에는 전국적으로 약10,000여점이 출품되었는데, 본대학미술교육과에서도 30여점을출품하여 다수가 입상하는개가를 올렸다.

한편, 대학미전 주최측은 문교부, 문화공보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후원을 얻어 9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덕수궁「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 중이다.

이번 대학미전에 입상한민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양화부(일반부)특선||강동원(4) 김효순(4) 김은숙(4) 김영희(4) 김종백(관광·3) 윤성희(국교·3) 장려상||강동한 조연숙(3) 장려상||임상편(4) 김병화(4) 김영애(4) 강영남(3) 장민의(3) 김영애(3) 강영남(3) ○동양화부(새마을운동부) 장려상||김영희(2) 입선||이경미(2) 김수리(2) ○그래픽(제1부) 장려상||진명자(2) ※()안은 학년.

功勞學生 表彰

姜南國君(國敎·3)等 五名

지난 9月4日 공로학생(체육부장)에 대한 표창장수여가 소재 9월9일 화랑전부(회장||강영규)에서 주최하는 반공영화 상영이 대강당에서 있었다. 지난 8월 18사건 때의 북괴만행을 비롯한 초원의 미술교육과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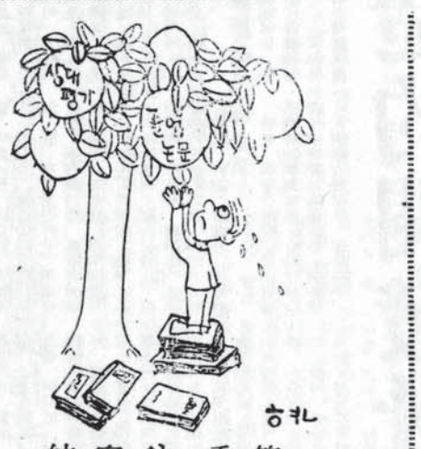
○동양화부(일반부)특선||강동원(4) 김효순(4) 김은숙(4) 김영희(4) 김종백(관광·3) 윤성희(국교·3) 장려상||강동한 조연숙(3) 장려상||임상편(4) 김병화(4) 김영애(4) 강영남(3) 장민의(3) 김영애(3) 강영남(3) ○동양화부(새마을운동부) 장려상||김영희(2) 입선||이경미(2) 김수리(2) ○그래픽(제1부) 장려상||진명자(2) ※()안은 학년.

反共映畫上映

花郎戰友會서

△체육상||송창윤(체교4)
△체육상||황수성(체교4)
△체육상||고재용(체교1)
△체육전 마라톤 1위||강남
△봉사활동 공로자||강남

評漫 大濟



節季의 實結

圖書寄贈

아시아財團서

지난 9월3일 문화사업재단인 아시아재단에서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도서를 증정했다. 『Plane analytic Geometry』를 비롯한 156권의 洋書를 우리나라 한국공업대학에 보내온 아시재단은 지난 9월3일 문화사업 아시아재단에서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도서를 증정했다. 『Plane analytic Geometry』를 비롯한 156권의 洋書를 우리나라 한국공업대학에 보내온 아시재단은 지난 60년 이후 15차에 걸쳐 1945권의 洋書를 본대학 부속도서관에 기증했다. 한편 오는 15일 동재단의 슬로씨가 본대학에 내교할 예정인 것으로 도서관 담당자가 전했다.

論文集 發刊

論文26篇收錄

본대학 論文誌 第七集이 지난 5월 10日字로 발간되었다. 9월 1일부터 배부하기 시작한 이 論文集은 지난 2월 정년퇴직한 『김 기환교수 정년퇴직기념호』로 인문사회과학편과 자연과학편 2권으로 되어있다. 인문, 사회과학편에는 조 문부, 김 영화, 이 순형, 박표한 「地方大學으로서의 濟州大學의 高等敎育 改革에 關한 硏究」를 비롯하여 11편의 論文이 수록돼있고 자연과학편에는 박양문, 권 오균 양교수가 발표한 「濟州地域 新開墾地의 作物選擇에 關한 硏究」를 포함한 15편의 論文이 수록되어있다. (인문사회과학편 4×6배판 242P, 자연과학편 4×6배판 182P).

遣派 交換敎授

夫鍾哲 敎授 等 3敎授

본대학교 3명이 지난 9월 1일부터 교환 교수로 서울대학교에 가게됐다.

이번 교환교수로 가게된 교수는 부종철 (경영학과 조 문부 (행정학과 수 3명이 지난 9월 1일부터 교환 교수로 서울대학교에 가게됐다.

이번 교환교수로 가게된 교수는 부종철 (경영학과 조 문부 (행정학과 수 3명이 지난 9월 1일부터 교환 교수로 서울대학교에 가게됐다.

〈부종철 교수〉

他山之石

▲出席点數제지 事實無根. 어머, 저분 좋다 말았어! 無消息이 喜消息이라했던가?
▲圖書館 座席競爭 熾熱 에어콘이 有無냐, 면학분위기가 有無냐.
▲박대통령 배 축구에 中共의 입김 毛澤東, 最後의 발악이었군.
▲캠퍼스 移設統合에서 國會에 소나기라도 내리려나?

一九七七學年度 신입생모집요강

一九七七학년도 본대학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一、학과별 모집정원및 시험과목

학과		모집정원	시험과목
지역개발학부	경영전공	남·여 20명	국어·영어·수학1
	개발행정전공	〃 20명	〃 〃 〃
	관광전공	〃 20명	〃 〃 〃
교육학부	국어전공	〃 20명	〃 〃 〃
	영어전공	〃 20명	〃 〃 〃
	수학전공	〃 20명	수학2 〃 〃
	가정전공	여 20명	〃 〃 〃
	체육전공	남·여 20명	〃 〃 〃 수학1
	미술전공	〃 20명	〃 〃 〃 체육실기
	과학교육과	〃 40명	〃 〃 〃 미술실기 〃 수학2
농화학과		〃 40명	〃 〃 〃
축산학과		〃 40명	〃 〃 〃
원예학과		〃 40명	〃 〃 〃
식물학과		〃 40명	〃 〃 〃
어로학과		남 40명	〃 〃 〃
중식학과		남·여 40명	〃 〃 〃
식품공학과		〃 40명	〃 〃 〃
계		500명	

二、지원자격
1) 1977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한자.
2)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자.
3) ①색맹·색약자는 농·수산계학과에 지원할수 없으며 시력 0·5이하 청력(귀) 폐질·신체장애자 (소아마비및 지체부자유자) 기타 항해사로서 승선생활에 지장이 있는자는 어로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신체검사)에 의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4조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자 교육학부에 지원할 수 없다.
③ 신체검사에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자는 합격할 수 없다.

三、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매 (본대학 소정용지)
2)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통지서 또는 확인서 (도교육위원회 발행) 1매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은것) 1매 (합격자에 한함)
4) 생활기록부사본 1매
5) 사진 (규격 4cm×4·5cm 탈모상반신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5매

四、전형방법: 주관식 50% 객관식 50%

五、예비고사성적반영: 예비고사성적의 50%를 반영한다.

六、배점: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2) 100점 체육및 미술실기 100점

七、원서부교: 1977년 1월12일~1월31일 (20일간) 본대학 교무과

八、원서접수: 1977년 1월20일~1월31일 17시까지 본대학 교무과 (우편송부시는 기일내에 필착하여야 함)

九、시험기일: 후기 1977년 2월2일 (수) ~2월5일 (토)
① 필답고사: 1977년 2월2일 국어 (9시~10시) 영어 (10시 30분~11시30분) 수학 (12시~13시)
② 구술및신체검사: 1977년 2월3일 9시부터
③ 체육·미술 실기고사: 1977년 2월4일 9시부터

十、수험표 교부일시: 1977년 2월1일 13시 본대학 교무과

十一、합격자 발표: 1977년 2월14일 11시 본대학 게시판및 일간신문 지상

十二、제2지망: 제2지망은 제1지망 학과와 시험과목이 같은 타학과내에서만 지망할 수 있다.

十三、등록금: 문교부지시에 따름 (단, 교육학부는 입학금및 수업료 면제함)

十四、기타
1) 어로학과 지망자중 N·R·O·T·C희망자의 자질검사일시는 합격자발표시 공고한다.
2) 교육학부 미술전공지망자는 실기고사 (①소묘 ②구성·수채중 택일) 시에 화지 이외에 화구 (간이화구) 일체 지참할 것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무과 (☎ 2125~26)로 문의할 것

一九七六年 八月 日

제주대학

올바른 결단

가을의 문턱 9月에접어들었다. 어느새 귀뜨라미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밤, 피부에닿는 바람도 한결 思索적이다.

한여름의 긴 가물과폭우가 지나간 들판에 풍요한 結實이 무르러지고, 긴 午睡에 잠겼던 文化의 무대들이 다시 生氣를 되찾게 된 것이다.

이처럼 9月은 自然, 人文이 양면에서 生命力을 讚歌하는 季節이다.

춥도 덥도않은 날씨에 五穀百果가 무르익기를 재촉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은 人情을 두터이하고 훈훈 놓았던 책을다시 펼쳐 內面的 성숙을 기대하는 계절이된 것이다.

自然의 열매를 수확하기 爲해 人間의 지혜와 그 人間들의 땀흘리는 努力이 필요 했드시 文化의 創造를 爲해서도 人間的인 思辨과 人間的인 努力이 더욱 不可缺한것임을 상기 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創造는 본래 없는 것에서부터 새로만들어내는 것이며 不完全한 것을完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거기에 價値의문제 즉, 人間行爲의 道德性이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뜻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Campus內에서도 훈훈한 가을바람이 일기시작하고 있다. 누군가가 讀書百編義自見이라는 얘기가 했듯이 그러한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자. 우리의 마음을 푸르게 하여 온 天地가 푸르게물들고 그 푸르름의 結實化할때,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자. 이제 서서히 도서관이 붐비기 시작해진다.

젊은 知性들이여! 이번 가을 만큼은 온 情熱을 讀書와 內面忠實을 기할 수 있는 곳으로 출달음치자. (秋)

統合移設은 왜 必要한가

一例를 들면 行政의 二元化에 따라 豫算과 人力의 浪費를 가져옴은물론 이에따라 大學當局의 學生指導에 영세성을 不可避하게 만들었을 뿐아니라 여러가지 面에서 大學의 農水産學部가 大學의 그때에서 濟州大學 學生과 同門, 敎職員들의 꿈이요, 濟州道民 모두의 숙원으로 나타나 농수산학과 사학과 식품공학과 교육학과 가정학과 체육학과 미술학과 영어학과 원예학과 식물학과 어로학과 중식학과 식품공학과 등 12개학과 신설계획이 대학원의 인가를, 「학과」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대학원 신설계획은 지역개발학과 교육학과 사학과 지역개발학과 교육학과 등 지역개발학과를 통한 계설 지역개발학부의 경영, 개발행정, 관광전공과, 교육학부의 국어, 영어, 수학, 가정, 체육, 미술전공등을 「학과」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行政의 二元化에 따라 豫算과 人力의 浪費를 가져옴은물론 이에따라 大學當局의 學生指導에 영세성을 不可避하게 만들었을 뿐아니라 여러가지 面에서 大學의 農水産學部가 大學의 그때에서 濟州大學 學生과 同門, 敎職員들의 꿈이요, 濟州道民 모두의 숙원으로 나타나 농수산학과 사학과 식품공학과 교육학과 가정학과 체육학과 미술학과 영어학과 원예학과 식물학과 어로학과 중식학과 식품공학과 등 12개학과 신설계획이 대학원의 인가를, 「학과」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統合移設은 一部分에 지나지않는 問題들은 本大學의 建學理念을 實現하는데 커다란 장애가되고 있으며 學生들의 正常的인 면학에 지장을 招來하고 있는 實情이다. 統合移設은 모든 도민과 본대학 재학생, 동문과 더불어 간절히바라 본다. 다만 이 원대한 事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本大學이 「韓國속의 濟州大學」으로 成長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 것이다. 이런 한 숙원이 大統領閣下의 約束한 바 있고, 우리 濟州道民의 여망이 이러할진데 政府에서도 移設統合問題를 도외시할수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이 원대한 事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本大學이 「韓國속의 濟州大學」으로 成長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 것이다. 이런 한 숙원이 大統領閣下의 約束한 바 있고, 우리 濟州道民의 여망이 이러할진데 政府에서도 移設統合問題를 도외시할수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이 원대한 事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本大學이 「韓國속의 濟州大學」으로 成長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 것이다.

(柱)

영그는 季節에 풍성한 對話를

社說

開學과 함께 우리의 피부에 스며오는 가을은 마냥 싱그럽고 아름답기만 하다. 하늘은한 없이 높아가고 푸르러만 간다. 바다역시하늘을 닮아맑기만 하다. 不協和音에 가득 찼던 한여름은 끝나고, 이제는 그저 쓸쓸한 벌레소리와 풀잎들이 살랑거리는 協和音속에 젖어있다 우리 젊음은 이 지나가버린 歲月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自然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이다.

영그는 계절, 가을에 우리 또한 무엇인가 보탬있는 일을 찾아 그것에 精進하지 않을 수 없다. 꿈은 계절과 함께 자란다. 봄의 꿈이 거창하다면, 가을의 꿈은 아름답고 소박하다고나 할까. 어쨌든 사람은 계절과 함께 꿈을 잉태하고, 꿈을 키우고, 또그것을 다듬는다.

雄姿의 漢拏山을 우러르며 山野 곳곳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결과 함께 우리 濟大人 모두가 키우지 않으면안 될 꿈이 있다. 그것은 거창한 꿈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꿈이다. 거창한꿈은 이 소박한 꿈을 키우고 난 다음에는 더 알차게 다듬을 수있다.

지난 봄에 우리 濟大는 開校以來 改革을 위한 一大 試練을 겪었고, 그 試練이 짧은 期間동안에 治癒되고 있음은 濟大人 누구에게나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아직도 克服하지 않으면 않될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우선 濟大移設問題를비롯하여 지금까지는 地方大學이라는 울타리속에 安住하고 있었던 位置에서 이제는 「韓國 속의 大學」이라는 位置로飛躍해야 한다는 使命感을 안고 있다. 이 使命感을 위해서 우리 濟大人 모두가우선 키워야 할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훌륭한 傳統을 세우는 일이다. 傳統은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며 少數에 依해 일은것 수도 없다. 어디까지나 敎授와 學生間의 共通의 理解와關心 속에서만 바람직한 方向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共通의 理解와 關心은 진지하고 통성한 對話가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對話는 敎授와學生사이의 誠實한 人間關係를 그 밑바탕으로 하여야 비로소 成立될 수가 있다.

영성하고 비좁은 校庭속에서도 一코스스모스」는 부끄러운 듯이 피어나고 있다. 이 안에서도 우리의 對話는 마음껏 부르익을 수가 있다.

한번, 우리의 주변을 새삼스레 둘아볼 필요가 있다. 學園 內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먼저 우리의 對話로서 批判되고, 消化시키고, 解決되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먼저 社會로 흘러나가서 다시 學園內로 飛火된 적은 없었는가? 우리의 關心은 誠實한 人間關係를 中心으로 하여 學問에 대한 진지한 熱와 未來에 대한 無限한 可能性과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希望을 堅持하여야 할는 再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얄팍한 人間關係, 實利爲主의, 知性도 浪漫도 없는 大學生活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反省할 필요가 있다.

自己와 直接 利害關係가 없거나, 自己의 科가 아닌 敎授는 人事조차 하지않는 學生들, 試驗場에서 일어나는 不美스런 行爲 등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말해 주고 있는가? 問題点이 있을 때 이것을 對話로서 解決하지 못하고 어떤 物理的 方法으로서 解決할려는 學生이있다면 이것 또한 가장 重大視해야 할問題이다.

다시 한번 自然을 보자. 풍만한 배, 새빨갛게 익은 사과, 탐스러운 포도송이 山野의 온갖 植物들은 全力을 다하여영글고 있다. 이 此際에 우리도 풍성한對話로서 값진 열매를 맺어 보자. 이 가을에 나 自身은 무엇을 키우고 共同의

濟州島 火山灰土와 燐酸의 相互性

(三·農化學) 吳 瑢 彦

一 序言

사람도 흙에서 날아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土壤은 衣食住의 根源님은 아니라 萬物의 母体인 것이다.

古代文化가 隆盛한 地方은 거의 기름진 土地가 있는 河川의 流域이었든 것이므로 人類와 土壤과의 배지 못할 關係를 알수 있는 것이다. 즉, 古代文化의 發祥地인 中國, 이집트, 바빌로니아 등은 그 河川의 범람으로 해서 그 流域에 기름진 땅이 생기고 거름을 必要로 하지 않고도 農作物이 잘 영글었든 것이다.

그러나, 濟州道에는 이러한 河川이 없으므로 기름진 土壤이 생길수 없었던 것은 當然하며 그 火山의 폭발로 인하여 農耕에 不適當한 火山灰土壤이 生成되는 契機가 마련되어 버렸다.

濟州道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언제 부터 農耕을 始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史記에 三神人이 나타나서 농경을 했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나, 本格的인 農耕은 외부에서 移住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始作된듯 하다. 勿論 그 當時에는 土壤의 物理性이나 化學性은 念頭에 두지 않고 그저 씨앗 뿌리고 收穫했을 것이므로 그 收穫量은 보잘것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 當時는 그 程度의 收穫으로도 生命을 延命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나는 오늘의 人口를 堪當하기에는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좀더 科學化된 土壤管理로써 이에 대처해야할 줄 안다.

그런 뜻에서 本稿는 濟州道土壤의 一般的인 槪念을 알고 作物生育에 三大 營養素의 하나인 燐酸(P2O5)과의 關聯性을 알아 보는데 目的을 두고 記述하고저 한다.

二 成因

土壤은 그 組成이 Heterogeneous하고 熱力學的인 작용에대하여는 Hysteresis 現象을 나타내어 마치 생물체와도 같이 恒時變化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安定한 상태를 維持하고 있는 이른바 動的平衡狀態에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각 지역의 土壤 母材는 기상, 지형들의 諸件에 따라 動的平衡狀態를 유지하면서 그 지방 特有의 토양형으로 발전되어 왔으니 토양의 종류는 千差萬別하여 배우 다양하다. 따라서 本島는 전형적인 火山性 島嶼로서 火山噴出은 地質時代 新生代 第三紀末 푸라이오世에 地盤 大變動으로 海退가일어나 세계적인 陸化現象이 있을 때 隆起噴出 되었다. 이때東西로 벌쳐 있는 제주도 [illegible] 質構造線에 따라 粗面[illegible] 되어 중앙에 主峰인 한라[illegible] 루고 어느정도 현재의 [illegible] 까운 모양으로 되었는 것으로 짐작 된다.

그리고, 지질년대 第三紀는 세계적으로 화산활동이 활발하여지금의 대륙 외형이 거의 완성되어 해륙의 분포가 현재와 거의 같게 된 때이기도 하다.

本島의 火山活動은 間歇的이었으니 第三紀의 火山性堆積物이 풍화되다가 第四紀初에 安山岩의 분출로 화산활동이 再開되었고 그 뒤를 이어 玄武岩의 大噴流가있었는데 玄武岩은 분출기에 따라 接相이 달라 지고 있다.

本島의 화산활동은 역사시대에까지 繼續이 되어 A·D·1002年 高麗七代 穆宗 五年에는 飛揚島가 해저로 부터 隆起噴出되었고 A·D·100年 同 穆宗 10年에는 火山이 분출하였다.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는사이에 그 數300 餘의 寄生火山이 생겼고 화산성 토양 지방으로 된것이다.

三 分布狀況

本島의 火山灰土壤은 토양색으로 4個 火山灰土壤, 暗褐色 火山灰土壤과 低山丘陵地火山灰土壤群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암갈색 화산회토양은 그 理學性과 토양형태에 있어 나 토양군역의 화산회 토양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 각토양의 理學性은 결쳐 나타내었다.

그런데, 암갈색화산토양의 분포는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면 面境으로 부터 북제주군 한경면만 포, 율수, 청수리 境을 이으는 선도 서북부 지역의 해발 2000~3000m 이하 해안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본도에서는 농업이 집약화되고 있으며 비옥도도 가장 높은 지역들이다.

지형은 북향 及至 傾向으로 緩傾斜를 이루는 곳과 비교적 平平한 곳으로 되어있으나 起伏도 다소있다. 기후는 이 土壤群域中의 제주시 연평균 기온이 14·5도 이며 강수량은 연 1443·9㎜ 이고 증발량은 1500㎜ 가량인데 이것은 30年 동안 평균한 수치들이다.

最高極溫은 36·4도, 最低氣溫은 -4·1도, 冬節 서북계절풍이 甚하고 온도도 낮아 体感溫度는 기온보다 훨씬 下降하다.

植生은 田으로 일반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토층 단면은 1층 15~15㎝, 約熟 損失量 3~4%, 中間이 3~17% 함유되어 있으며 未風化土이다. 곳에 따라서는 지형이의 管道가 좋아져 있고 토양구조는 粒狀이 主이나 粒塊狀인 곳도 많으며 作土는 평균 10㎝내외 이고 토성은 微砂質 砂壤土, 토색은 암갈색을 나타내나 곳에 따라서는 회갈색인 곳도 間或있다.

2層은 40~50㎝ 까지의 두께인데 約熟 損失量이 적어 1% 내외가 함유되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氣水 透過性은 다소 불량하고 塊狀構造를 갖고 있다. 重質土이며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띄고 있다.

3層은 45~95㎝ 까지의 범위이며 約熟 損失量 1%이하 包含量도 증어들고 塊狀構造이며 緻密하다. 곳곳에 岩塊가 있는데 岩塊는 鐵銹로 물러 씨워져 있다. 호색은 황갈색, 土壤 母材는 非固結火性岩이며 堆積樣式은 농암갈색화산회토양은 본도의 북부 역에서 暗褐色火山灰土壤 群域의 남쪽으로 連이어해 발이 높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으며 남부 지역에서는 해안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비옥도가 다소 떨어지며 북부에서는 완경사 지형이며 기후는 기온이 고도에 따른 減減率이 100㎜에 約 5도가 되니 북부 지역에서는 제

燐酸 形態中 燐酸吸着과 有意相關을 보인것은 Ca-P이 있고 그 밖에 形態들은 有意性을 나타내지 않는다. Inorg.-P와 Total.-P도 燐酸의 吸着은 添加濃度에 比例하여 增量되고 그 吸着量은 Freundlich等溫式과 일치 한다.

Ca-P와의 관계는 負相關이며 1% 水準에서 有意性이 認定된다. Inorg.-P와 Total.-P도 負相關이며 5% 水準에서 有意性이 인정된다. 有機炭素와는 正相關으로 5% 水準에서 有意性이 인정된다.

施用된 燐酸은 Ca와 作用하여 吸着 機作에 重要한 役割을 하나 施用 Ca은 인산과 作用하여 Ca-P를 形成하기는 하나 含量이 어떠한 支學長을 만나고 遊園地(個人所有)管理者와 合議하여 우리 護友家族이 머무는 동안은 團体 손님은 一切 出入 시키지않기로 하였으니 大學生, 特히 우리 護友家族에 對한 社會人의 認識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한 [illegible] 더 어깨가 무거워 졌다. 修

增加가 燐酸 吸着量을 減少 시키는 것이다. 無機燐酸과 全燐酸은 어느정도 까지는 처리수가많을 수록 우수하나 그 한계를넘어나면 성적은 별로 효과가없다. 또 燐酸 施用量이 많을 수록 산도는 높아 지지만 인산흡수계수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 표준두에 비하여 인산시용 효과가 있었고 다량 시용으로 토양 산도는 앞으로 인류 사회에 어떤 不幸을 가져 올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食糧問題는 날로 深刻한 亂局을 가져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本島 農業도 過去와 같은 在來式 농업에서 脫皮하여 科學化된 영농으로 잘사는 來日 더나가서는 食糧問題解決 이라는 모토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할 것이다.

四 燐酸動態

1) 酸 吸着에 미치는 溫度의 影響 燐酸 吸着에 미치는 溫度의 影響은 〈표四·1~四·2〉에 Freundlich등 溫式(a=ae^-bt)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알수 있고 또 그것은 〈Fig 1〉에 plot 하였다.

〈Fig 1〉에 의하면 溫度가 높아질 때 Freundlich等 溫吸着線은 낮은 溫度인데 比하여 添加 燐酸 濃度에 死例하면서 서계바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회전하고 있다. 그러나 Fischer가 지적 했듯이 Freundlich等溫式은 歸納的 實驗式이에 때문에 이 式과 잘 일치 된다고 반듯이 物理的 吸着이라고 할 수는 없다. 火山灰土에서의 燐酸 吸着은 溫度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으면서도 科學的인 吸着現象이며 比較的 높은 吸着熱을 수반하는 物理的 吸着은 Freundlich 等溫式으로 記述되어 왔었다.

2) 燐酸 吸着과 形態別 含量과의 關係.

토양 燐酸의 形態別 含量, 燐酸 吸着의 有意性을 보인 有機炭素 그리고 添加 燐酸의 半量이 토양에 吸着되어서 平衡에이르는 量은 Freundlich 酸溫式 증 유효 인산 함량은 증가 되었는나 수량에는 대차가 없다. 나), 석회시용으로 산도가 교정되었고 배량 시용으로 수량이저하 되었다. 다), 인산 32kg/10a, 석회 중화량 시용구가 관행시비구에 비하여 14% 유의 증수 됐다.

2) 대두 (Hill 종) 에서 効果.

관행 시용구 보다는 5% 조절에서 분지수, 협수, 100립중 등이 증가 하고 있다.

五 燐酸 增施 效果

1) 쌀보리 (향천과 1호) 에서 効果 시험성적은 화산회토양에서는 어느정도 까지는 처리수가많을 수록 우수하나 그 한계를넘어나면 성적은 별로 효과가없다. 또 燐酸 施用量이 많을 수록 산도는 높아 지지만 인산흡수계수는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 표준두에 비하여 인산시용 효과가 있었고 다량 시용으로 토양 산도는 앞으로 인류 사회에 어떤 不幸을 가져 올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食糧問題는 날로 深刻한 亂局을 가져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本島 農業도 過去와 같은 在來式 농업에서 脫皮하여 科學化된 영농으로 잘사는 來日 더나가서는 食糧問題解決 이라는 모토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할 것이다.

六 結言

지금까지 濟州道 화산회토양의 內容, 燐酸(P2O5)과의 機作, 作物生育과의 關係등에 대해서말했다.

「일찌기 영국의 經濟學者 Thomas Malthus가 그의 저명한 저서인 人口論에서 말하고 있는것 처럼 인구는 幾何級數的인 增加에 비하여 食糧의 생산은 算術級數的으로 증가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식량의 저율적인생산은 앞으로 인류 사회에 어떤 不幸을 가져 올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食糧問題는날로 深刻한 亂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因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本社에서는 147호부터 學生論文대신 四學年 學生의 卒業論文 抄錄을 發表할 豫定입니다. 卒業論文을 完成하신 분은 30枚內外의 論文抄錄을 投稿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接受는 本編輯室에서 수시可能하며 부고시 명석판 사진 1매동봉바랍니다.
濟大新報社

가나안, 그 꿈의터전에서

(二·光觀) 秦 瑗 咸

1500여재학생 여러분 우리제주대학과 국가에 이 있읍니다.

우선 여러학형의 적극적인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도움으로 6개월 동안의 단기를 보낼 말없이 마치게된 것을 여러분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원해 보건데 지난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읍니다.

너무 짧은 기간동안 우리 제주대학은 너무도 많은변화를 가져온 기간이기도했읍니다. 크게는 신입학장의 첫 학부를 시작하였고 캠퍼스 통합이성이 구체화되었으며, 각계는 학생들의의 식구조가 면학에 힘음기울이게 된 시기가 바로 지난 학기였읍니다. 이런 과 의 중차대한 재인기간 동안 우리는 각자 학생의 자신의 말은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건한 자세이면 과 각자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전을 극복하는 첩경은 각자 학생의 자신의 북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잊을수 있는 아시아의 왕이될 것이다〉라는 신탁의 불 그리고 차기 호국단 간부에게 체계적이고, 모든학생들이 기대를 저버리지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자 겠읍니다.

재학생 여러분, 모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께 이 모든 기대특걸 러분께 이 모든 기대특걸 러분께 이 모든 기대특걸

골디우스의 매듭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前任聯隊長 강 동 언(兵·教·四)

〈골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말은 아직 풀리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풀수 있는 자 왕이될 것이다〉라는 신탁의 불 부에게 체계적이고, 모든학생들이 기대를 저버리지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자 겠읍니다.

재학생 여러분, 모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께 이 모든 기대특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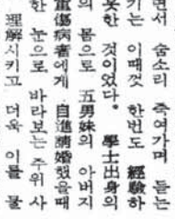
한번씩 생각해 주십시요. 리들 앞에 묶여 있습니다 [illegible] 리들 앞에 묶여 있습니다 [illegible] 리들 앞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無用之用」이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행사 에 참여하는 의의와 참여 [illegible] 의의와 참여 [illegible] 의의와 참여

「우리의 信條」確認하는 決議文採擇 精神革命에 우리의 끓는피가要求돼

새벽 5시에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상을 하여 밤 10시 日夕点呼를 끝으로 하는 꽉 짜여진 日課는 學校生活과는 판판이긴 했지만 全國 大學에서 보인 學生은 하나 같이 새마을 精神敎育〉

새벽 5시에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상을 하여 밤 10시 日夕点呼를 끝으로 하는 꽉 짜여진 日課는 學校生活과는 판판이긴 했지만 全國 大學에서 보인 學生은 하나 같이 의 말씀, 아니 가나안 農君學校 副校長 김충일 先生의 지난날 이야기는 유우머스런 것이었으나 그 어쩌 웃음으로 넘길 일이 였던가. 그분 나온 圖体들의 벤드와 生音樂은 우리 護友家族을 당황하게 했지 만 支學長을 만나고 遊園地(個人所有)管理者와 合議하여 우리 護友家族이 머무는 동안은 團体 손님은 一切 出入 시키지않기로 하였으니 大學生, 特히 우리 護友家族에 對한 社會人의 認識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한 [illegible] 더 어깨가 무거워 졌다. 修



練大會의 目的은 本會의 理念을 고취시키면서 全國 會員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우리의 信條〉를 確認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分明 이것은 「이제 더이상 정복당이 없구나!」하고 울부짖는 알렉산더가 풀었다라고 하는 〈골디우스의 매듭이〉우리 감사합니다.

練大會의 目的은 本會의 理念을 고취시키면서 全國 會員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우리의 信條〉를 確認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分明 이것은 「이제 더이상 정복당이 없구나!」하고 울부짖는 알렉산더가 풀었다라고 하는 〈골디우스의 매듭이〉우리 감사합니다.

1、우리 호우회는 발공 호국 선열의 뜻을 계승 승화시켜 나라와 겨레를 지키는 호국용사가 될 것을 굳게 결의한다.

1、우리 호우회는 지역사회개발의 기수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 호우회원은 건리불탐 구하는 학도로서의 벗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모든 동료학생들의 모범이 될 것을 결의한다.

1、우리 호우회원은 국가 유공자의 후예로서 명예를 걸고 민족과 국가의 기강이 될 것을 결의한다.

1、우리 호우회는 지역사회개발의 기수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 호우회원은 국가 유공자의 후예로서 명예를 걸고 민족과 국가의 기강이 될 것을 결의한다.

〈새마을 精神敎育〉

새벽 5시에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상을 하여 밤 10시 日夕点呼를 끝으로 하는 꽉 짜여진 日課는 學校生活과는 판판이긴 했지만 全國 大學에서 보인 學生은 하나 같이 의 말씀, 아니 가나안 農君學校 副校長 김충일 先生의 지난날 이야기는 유우머스런 것이었으나 그 어쩌 웃음으로 넘길 일이 였던가. 그분 나온 圖体들의 벤드와 生音樂은 우리 護友家族을 당황하게 했지 만 支學長을 만나고 遊園地(個人所有)管理者와 合議하여 우리 護友家族이 머무는 동안은 團体 손님은 一切 出入 시키지않기로 하였으니 大學生, 特히 우리 護友家族에 對한 社會人의 認識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한 [illegible] 더 어깨가 무거워 졌다. 修

練大會의 目的은 本會의 理念을 고취시키면서 全國 會員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우리의 信條〉를 確認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分明 이것은 「이제 더이상 정복당이 없구나!」하고 울부짖는 알렉산더가 풀었다라고 하는 〈골디우스의 매듭이〉우리 감사합니다.

謹啓
時下新綠之節에 貴機關의 發展과 貴下의 健勝을 삼가 祈願합니다.
今般 開催된 本會 第十回 定期總會에서 不肖 저희들이 新役員에 被選되어 向後 一年間의 會運營을 責任맡아 보게 되었읍니다.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더욱 圖謀하며, 在日 僑胞社會와 祖國發展에 貢獻코자 다짐하오니, 앞으로도 다름없는 指導와 편달이 있으시옵기 바라오며, 寸書로써 人事말씀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一九七六年 五月 日

就任人事

在日 濟州青年會

顧問 吳 [illegible]
相談役 朴 [illegible]
會長 李 [illegible]
常任副會長 韓 [illegible]
內務副會長 吳 [illegible]
外務副會長 梁 [illegible]
監査 金 [illegible]
總務部長 梁 [illegible]
組織部長 康 [illegible]
涉外部長 姜 [illegible]
財政部長 車 [illegible]
厚生部長 朴 [illegible]
廣報部長 高 [illegible]
記錄部長 安 [illegible]
企劃部長 金 [illegible]
事業部長 金 [illegible]
幹事 安 [illegible]
金 [illegible]
韓 [illegible]
李 [illegible]
金 [illegible]
玄 [illegible]
鄭 [illegible]
夫 [illegible]
高 [illegible]
康 [illegible]
朴 [illegible]
夫 [illegible]
夫 [illegible]
金 [illegible]
李 [illegible]
高 [illegible]
玄 [illegible]
無任所幹事

[illegible]

〔시〕

사 랑

이 택

(영교 · 3)

반쯤 헤어진 상처에
불꽃의 사랑 움트고
서로의 상처 맞대어
아픔의 의미를 교환한다.

꿈틀거리어 고개쳐들다
핏발서린 정열의 핏줄 파묻고
이끼낀 상흔 감추어

입가에 뒹그는 미소는
차디찬 아침이슬 머금어
허공향해 회한을 뿜어낸다.

멍들어버린
사랑의 살내음
온누리에 파문을 뿌린다.

내罪가 무어냐

李 錫 範

〈創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지만 내게는 김돌명군이라는 친구가 있읍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녔고 꼭 이나 가까웠읍니다.

국민학교때는 학교가 파하면 늘 함께 붙어다니면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을 매일같이 했읍니다. 비교적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던 나에게 김돌명군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읍니다. 기집애 같은 말끔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눈이 커다란 김돌명군은 손도 퍽 고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녀린 손을 가지고서도 김돌명군은 구슬치기를 나보다 훨씬 잘했읍니다. 아니, 내게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또래중에는 가장 잘했었던 것입니다. 미끈미끈한 손을우리에게 보이면서구슬을쥐고 냥하면 김돌명군의 두 눈은 흡사 갑비싼 보석처럼 환홀하게 번뜩이곤 했었읍니다.

어느날은 딱지치기를 하는데 김돌명군은 인정사정 없이 나의 딱지를 몽땅 따버렸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웃을지도 모르지만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할 때의 그 무서운 실력에 두려움과 함께 질투를 같이 느끼고 있던 나는, 이날따라 누적되었던 분노라면 분노가 폭발하여 힘이 약한 김돌명군을흠씬 때려주었읍니다. 사람이마음이란 원래가 교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런 반항없이 그저 나의 손길을 따라 피피 쓰러지는 김돌명군을 대하니까 배리면 때릴수록 신이 나는 것이었읍니다. 아무런 방법으로 못살게 굴어도 반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자, 나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김돌명군을 흠씬 때려주었던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기진하여, 결에서 식식거리고있을 때야 김돌명군은 자세를 바로 하고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자기의 코에난 피를 딱아내며,

「자, 난 이제 간다.」

하며 떠나가는것이었읍니다

그러나 김돌명군의 위장술은 어릴때의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의 실력처럼 완벽한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뜨이지 않았었던가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김돌명군은 독서량이 많고 사리를 냉정히 판단할 줄 알며 점잖은 학생으로 평가가 되었읍니다. 반면 내게는 그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었읍니다. 뭔가 정서가 불안정하고 껄렁기가 있으며 손버릇이 안좋은 놈으로 말입니다.

밤이면 혼자 있게 되는시간에 나는 질투로 날을 밝혀야 했읍니다. 머붙어서 김돌명군의 성격을 나쁜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었고 어느덧 그런 생각은 정당한 평가인 것처럼 자신에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었읍니다.

나는 뭔게만 있으면 김돌명군을 찾아가 두들겨 주었읍니다. 힘이 약한 김돌명군은 항상 맞기만 하였으며전 때도 김돌명군은 전혀 남에게 그런 기색을 내보이지않았읍니다.

나는 내가 추진하는 일에 한동안 몰두하면서 재미를느끼다가, 어느날 곰곰히 생각을 하면서는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김돌명군의「거짓된」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내려지는 평가라는 하나의 완제품에 비끌만큼한 흠이라도 입혀서 손상시키고싶지않다는 처절하도록 가여운「체면」이라는 것을 확인하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자 나는 다시 김돌명군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 바로 우리의 김돌명군이라는 나대로의 해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려고 해선지는 몰라도 김돌명군과 나는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었읍니다. 자연히 우리 둘은 만나는 횟수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대학입시준비에 바빠서 남의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뭏든 그렇게 자신들의일에 바빠서 서로를 까맣게잊어버리던 중에 김돌명군과 나는 대학에도 진학을했읍니다 공부를 잘하던 김돌명군이 역시 우리나라의 일류대에들어갈 수 있었고, 껄렁기가 있던 내가 삼류대학에 밖에 적을 둘 수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도 놀라울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그런 소문을 들고 옛날의 추억이라면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김돌명군을 잠깐 머리에 떠올릴 수 있었고, 이내 잊어버렸는데 참 김돌명군의 어린시절을 손을 뒤집듯이 잘 알수 있는 나로서는 결코 납득이 가지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김돌명군의 하숙집 친구들을중지만 뒤숭숭한 국내의 사태에 대처하기 의해서 나라에서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때였읍니다. 모든 학생운동이 제약을 받던 시절이었고 더구나 정부를 비방하는 과격한 데모는 큰 벌을 받도록 법이만들어져있었읍니다

그런 시기에 자결을 초래하는 데모에 김돌명군이 가담했다는 것이었읍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읍니다. 이전 누구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 장본인이 김돌명군이든, 아니면 놀라움만 담하고 있던 내자신이든 어느편엔지 분명한 잘못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읍니다.

결국 김돌명군은 갑이 데모에 나섰던 여러며과 경찰에 붙잡혔읍니다. 데모 당시 경찰이 찍은 사진에 김돌명군이 크게 박혀 있어서 쉽게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긍이 갈만한 일이었읍니다 김돌명군은 그후 몇달을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다행히 주동자는 아니라는 점이 참작이 되어 실형은 선고받지않고 풀려났읍니다만, 김돌명군으로 봐서 분명히 긍지를가졌었음직한 일류대학에서는제명처분을 받고 외면되어버렸읍니다. 김돌명군이 자살을 감행한 시기는 바로 자신이 다시 복적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언절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직후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 곁에서는 희안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몇 글자였읍니다.

「내 죄(罪)가 무어냐?」

처음엔 저도 의아했읍니다만, 그 하숙방에서 동거하던 김돌명군의 친구의 이야기와 나의 추리로써 의문은 풀려갔읍니다.

도저히 그렇게 위험한 데모에 가담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김돌명군은 자기네 학교에서 맷돼이 모몰 벌이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이 너무나 소란스러워 그냥 도서관을 나오는데 데모대가 바로 도서관앞을 경찰의 추격을 받고 도망치고 있었읍니다. 그틈에 휩쓸려끼게 되었는데 그만 그장면이 경찰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뚜렷이 박힌 일굴을 보고서 체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경찰은